

국내 은행 순이익 18.5조 '역대 최고'... 이자이익만 56조

금감원 '2022년 은행 영업실적'

고금리에 이자이익 22% 급증
 비이자이익은 52%나 줄어들어
 불확실성 대비 충당금 적립 확대

국내 은행의 순이익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금리 상승 등에 따라 이자이익이 증가한 영향이다. 다만, 비이자이익은 감소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은행 순이익은 18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6%(1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영업실적을 취합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항목별로 보면 작년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55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조9000억원(21.6%) 급증했다. 대출채권 등 이자수익자산 증가와 함께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순이자마진(NIM)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 현황>

구분	2021년(A)					2022년 ^P (B)					증감(B-A)	
	1Q	2Q	3Q	4Q	1Q	2Q	3Q	4Q ^P	증감(B-A)	증감률		
국내은행	16.9	5.6	5.4	4.8	1.2	18.5	5.6	4.2	4.3	4.4	1.6	9.6
일반은행	10.1	2.9	3.2	3.2	0.8	13.4	3.6	3.2	3.7	2.9	3.3	32.9
시중은행	8.6	2.5	2.7	2.7	0.7	11.7	3.1	2.8	3.1	2.6	3.1	36.7
지방은행	1.3	0.3	0.4	0.4	0.1	1.6	0.4	0.4	0.5	0.3	0.3	18.7
인터넷은행	0.18	0.03	0.07	0.07	0.00	0.10	0.03	0.02	0.06	0.00	△0.08	△42.0
특수은행	6.8	2.7	2.2	1.6	0.3	5.1	2.0	1.0	0.6	1.5	△1.7	△24.9

순이자마진이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자산 운용 수익에서 조달 비용을 뺀 뒤 운용자산 총액으로 나눈 값으로, 금융회사들의 수익 능력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다.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 즉 평균잔액은 2021년 2757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3041조7000억원으로 10.3% 늘었다. 순이자마진(NIM) 역시 같은 기간 1.45%에서 1.62%로 0.17%포인트(p) 확대되면서 이자이익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지난해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은 3조4000억원에 그쳤다. 전년(7조원) 대비 52.0%(3조6000억원)나 감소한 것이다.

유가증권관련 손익 1조9000억원, 기타영업이익 2조 5000억원, 수수료이익 3000억원 등이 감소했고 외환·파생관련 이익은 1조원 증가했다. 산업은행이 HMM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1조 8000억원의 관련 이익이 전년도에 반영된 데 따른 기저효과는 비이자이익 감소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내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충당금 적립을 확대했다. 대손비용이 6조3000억원으로 53.7% 늘었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52%로 0.01%p 하락했고 자기자본순이익률의 경우 7.41%로 0.44%p 상승했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판매비와 관리비는 26조 3000억원이다. 급여 등 인건비는 2021년 씨티·SC 등 일부 은행의 희망퇴직 실시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1조원 감소했지만, 임차료 등 물건

비는 1조원 늘어났다.

대손비용은 6조 3000억원으로 전년(4조 1000억 원) 대비 2조 2000억원 증가했다. 작년 2분기 대손충당금 산정방식이 개선되면서 신규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1조 9000억 원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요국 긴축 등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에도 은행 본연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국내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자본 비율이 취약한 은행들에 대해서는 자본 확충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라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건전성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하나銀, RPA 프로그램 개발 플랫폼 구축

(로봇 자동화)

인지영역 자동화 등 DX 확대
 '1부서 1봇' 프로젝트도 시행

하나은행은 디지털 혁신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로봇 자동화(RPA) 프로그램 개발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16일 밝혔다.

로봇 자동화 프로그램은 직원이 처리하던 반복적 업무를 로봇이 대체할 수 있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한 것이다. 하나은행은 단순 업무 자동화를 넘어 인공지능과 챗봇, 광학문자인식(OCR) 등과 연계한 인지 영역 자동화로 디지털 전환을 확대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번 로봇 자동화 프로



그램 개발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전문 개발자가 아닌 직원들도 로봇 자동화가 필요한 과제를 직접 발굴하고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 모든 현업 부서에 로봇 자동화를 도입하는 '1부서 1

봇' 프로젝트(사진)도 시행중이다.

특히 로봇 자동화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실무 적용 사례와 개발 노하우를 공유하는 디지털 환경을 구현함으로써 직원들의 집단지성과 부서 간 협업 시너지가 극대화 되도록 유도했다.

하나은행 업무혁신부 관계자는 "RPA를 활용해 연간 약 150만 시간의 직원 업무가 경감됐고 유휴 역량은 손넉 편의성 증대 등을 위한 업무에 재배치할 수 있었다"며 "하나은행은 인공지능, 챗봇 등 디지털 신기술을 융합한 초자동화 시스템 적용을 위해 디지털 혁신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페퍼저축銀, 지역 대학생 위해 2.5억 장학금
 페퍼저축은행은 AI 페퍼스 배구단 연구 지원 호남 지역 대학생 100명에게 2억 5000만원의 '제3회 페퍼저축은행&AI 페퍼스 희망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김동연 AI 페퍼스 단장(오른쪽 첫번째)과 장학생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페퍼저축은행

우리은행·우리카드 세계 최초 비대면 봉헌 '가톨릭페이' 정식 출시

우리은행은 우리카드와 공동으로 세계 최초 천주교 비대면 봉헌 서비스인 '가톨릭페이'를 정식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가톨릭페이' 서비스는 오프라인에서 현금으로만 가능했던 봉헌을 모바일 현금서비스로 구현했고 천주교 공식 모바일 앱('가톨릭 하상')과 연동해 신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가톨릭페이'는 기존 '우리페이'를 화이트라벨링(제휴를 통해 타사 앱에 당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공한 '통합결제 플랫폼' 서비스로 온·오프라인 간편 봉헌과 함께 신자 간 간편 송금도 가능해지는 등 편의성을 한층 강화했다. 신자는 실시간으로 본인의 봉헌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현금 봉헌으로 받지 못했던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가톨릭페이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이승용 기자



지난 15일 코엑스에서 열린 'IBK창공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자 네트워킹'에 참석한 IBK기업은행 관계자와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기업銀 'IBK창공 투자 네트워킹' 행사

투자유치·협력 등 만남의장 확대

IBK기업은행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IBK창공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자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위축된 벤처투자시장에서 기업은행의 창업육성플랫폼 'IBK창공' 육성기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투자 유치와 외부 투자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투자이력, 'IBK창공' 프로그램 참여 적극성 등을 반영해 50여개사의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이 초청됐으며 기업은행 창공 운영진, IBK금융그룹 투자 담당자 등도 참석했다.

기업은행은 이번 행사에 초청된 벤처캐피탈리스트를 'IBK창공'의 투자자 문역으로 위촉해 투자정보를 공유하고 IBK창공기업들과 만날 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투자기업 풀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주금공 PF-ABCP 장기대출 전환보증 출시

1.5조 공급, 사업장도 보증 포함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6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장기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PF-ABCP 장기대출 전환보증'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증권사나 건설사는 PF 사업장에 대한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ABCP를 발행해 위험을 분산한다. ABCP 만기는 통상 3개월인데 최근 고금리 등으로 PF 사업이 부진해지면서 ABCP 차환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 경제정책방향'에서 증권사 등이 ABCP를 장기대출로 전환해 유동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환보증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공급 규모는 1조5000억원이다. 보증 비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확대했고 분양 후 사업장도 보증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정상 PF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인 만큼 증권사 등이 이전 대출에서 부담한 신용보강 조건은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신한銀-딜로이트 안진, '재무자문' 맞손

컨설팅·구조조정 등 토탈 솔루션

신한은행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IB-기업승계 등 프리미엄 재무자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딜로이트 안진과 협력해 중소·중견기업 및 고자산 고객 대상 ▲기업 컨설팅 ▲M

&A 및 투자자문 ▲구조조정 ▲세무 ▲개인자산관리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의 창업, 성장, 성숙, 재도약 등 기업 생애주기 단계별 맞춤형 재무자문을 통해 전략 컨설팅, 신사업 발굴, 사업재편, 구조조정 등의 다양한 스펙트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동반성장을 추진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